

일제말 군국가요(軍國歌謠)의 발표현황과 실태*

이동순**

|| 차례 ||

1. 역사와 문화, 역사와 대중가요
2. 일제강점기 레코드회사와 음반제작 환경
3. 일제말 대중음악인들의 활동과 실상
 - 1) 레코드회사별 군국가요 발표현황
 - 2) 작사가, 작곡가, 가수별 군국가요 발표현황
4. 화합과 창조를 위한 제언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중반에 이르는 일제식민통치 말기에 발표된 군국가요에 관한 분석이다. 군국가요란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직접, 간접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노래를 말한다. 이러한 가요작품들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권력과 강압에 의해 자의가 아니라 타발성으로 제작 발표된 경로를 지니고 있다.

1936년부터 1943년까지 서울의 대표적인 레코드회사들에서 제작 발매된 군국가요는 약 211편 가량이다.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 레코드 회사와 음반제작 환경, 일제말 대중음악인들의 구체적 활동과 실상을 상세하게 조사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레코드 회사별 군국가요 발표현황, 작사가, 작곡가, 가수별 군국가요 발표현황까지 모두 조사 정리하였다.

당시의 대표적인 작사가, 작곡가, 가수들이 이 제작에 참여하였는데, 그것은 대중음악인들의 기본적 생존과 직결된 불가피한 문제였다. 하지만 세월이 경과하여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당시 한국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란 명분으로 과거 친일경력을 가진

* 이 연구는 2011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그것을 방대한 책으로 발간하였고, 여기에 대중음악인 18명이 을사오적과 같은 매국노와 함께 그들의 명단이 올랐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결과론만 내세우는 직선적 사고의 위험성을 이제는 배제하고, 너그러운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그들의 뛰어난 가요작품들을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물론 대상 자료를 항상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거부보다는 수용적 측면에서 과거사 교육의 중요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과 접근방식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주제어 : 일제강점기, 군국가요, 대중음악인, 레코드, 용서, 화해

1. 역사와 문화, 역사와 대중가요

아직도 우리 역사는 과거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예측컨대 이러한 불편과 부자유는 앞으로도 한참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어둡고 우울한 과거사의 족쇄에 휘말려 고통을 받을 것인가. 인간이 향유하는 문화는 당대의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역사를 배경으로 문화가 형성되고, 또 그 문화는 역사변화에 깊은 영향을 던져준다. 그리하여 역사와 문화는 그 특성상 상호친연성(相互親緣性)을 지니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통합성과 조화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91년에 설립된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연구소 설립의 최대목적으로 삼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약칭 반민규명위)가 발족(2005.5.31)과 더불어 이른바 ‘구체적인 반민족행위와 해방 이후의 주요행적’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고, 2005년 8월에는 사전에 오르게 될 친일인사 3,090명의 명단을 1차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에 따른 많은 사회적 충격과 물의를 빚었다.

이 발표명단은 매국, 중추원, 관료, 경찰, 군, 사범, 종교, 문화예술, 언론출판 등 16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하였는데 분야별로 매국인사 24명, 수작·

습작 138명, 중추원 335명, 일본 제국의회 11명, 관료 1,207명, 경찰 880명, 군 387명, 사법 228명, 친일단체 484명, 종교 202명, 문화예술 174명, 교육 학술 62명, 언론출판 44명, 경제 55명, 지역 유력자 69명, 해외 910명 등 5,207명(중복자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무리한 조사과정으로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인물은 도합 4,776명으로 최종 정리되었다.¹⁾

우리는 이러한 청산론, 즉 과거사 정리 작업의 필요성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하여 일단 긍정적 관점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사 정리가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는 진정어린 충정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 소속 구성원들이 ‘친일파 적발’이란 관점에서 수집 정리한 자료의 파일은 대개 기록물 위주로 정리되었고, 그 당시에 대하여 구체적 경험을 갖지 않은 수집 활동에 의존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충동적이고 위험한 양상으로 흐르게 되었다.²⁾ 이러한 사업은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을 두고, 공청회를 가지며 최종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최대한의 신중을 기해야만 할 터이나 이 활동이 당시 노무현정부의 정책과 방향성에 편승하여 황급히 추진된 경향이 없지 않았다. 조진형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파 명단이 설득력을 상실한 매우 잘못된 작업이었음을 지적하며, ‘역사 정리는 머리로 하는 것임에도 이 작업이 가슴과 분위기로만 일관’되었음을 비판하여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³⁾ 조진형은 친일파 선정 작업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음악은 음악인에게, 미술은 미술인에게 불교는 불교계 등에 위촉

1) 하지만 2009년 10월에 도합 3권으로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는 애초 발표했던 숫자에서 다시 350명가량이 축소되어 도합 4,430명 정도가 수록되었다. 이것은 등재인명 선정과정의 객관성 결여와 그 문제점의 현황을 말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2) 이른바 친일음악인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계량적 판정에만 의존했다는 취약성이 먼저 지적된다.

3) 조진형, 「음악가 중 청산되어야 할 친일파는 없다」, 이슈읽기-〈친일인명사전비판〉, 모아진, 인터넷검색창 <http://olv.moazine.com/tviewer/index.asp>

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음악 무용인은 도합 43명으로 그 중 음악인의 경우 서양음악 12명, 국악 2명, 대중음악 18명 등 32명으로 분류된다.⁴⁾ 그러나 우리는 이 책에 수록된 명단에 대하여 깊은 당혹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 왜냐하면 이 명단을 제외하고 나면 한국현대음악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음악사의 경우 비중 높은 인물들이 총망라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남긴 가요작품은 지금도 국민 대중들의 지속적 사랑을 받고 있으며 삶의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공식화되었다.

『친일인명사전』이란 민족사의 반역자로 낙인을 찍어 영원한 죄인으로 규정짓는 참으로 엄중한 징벌임에 다름 아니다. 설령 그들의 과오를 수용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찌하여 을사오적(乙巳五賊), 정미칠적(丁未七賊), 경술국적(庚戌國賊)⁵⁾ 등의 매국노와 동일한 반열에 포함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또 하나의 심각한 과오를 저지른 것으로 이러한 결정이야말로 반역사적 반문화적 폭력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른바 ‘잘못된 과거 사정산’이란 명분으로 빚어진 새로운 과오를 비판하며 이를 변정(辨正)하고자 한다.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가리고 따져서 바로잡는 과정이야말로 역사 변정의 근원적 취지이자 목표이기 때문이다

4) 참고로 그 명단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악: 함화진, 김기수, **양악:** 계정식, 김관, 김동진, 김생려, 김성태, 김천애, 안익태, 이인범, 이홍렬, 조두남, 현제명, 홍난파, **대중음악:** 강영철, 김영길, 김준영, 김해송, 남인수, 박시춘, 백년설, 반야월, 손목인, 이규남, 이봉룡, 이재호, 이철, 장세정, 전기현, 조명암, 최팔근, 한상기

5) 을사오적(乙巳五賊): 권중현, 박제순, 이근택, 이완용, 이지용(5명), 정미칠적(丁未七賊): 고영희, 송병준, 이병무, 이완용, 이재곤, 임선준, 조중웅(7명), 경술국적(庚戌國賊): 고영희, 민병석, 박제순, 윤덕영, 이병무, 이완용, 이재면, 조민희, 조중웅(8명)

2. 일제강점기 레코드회사와 음반제작 환경

일제파시즘 통치하에서 생산된 가요는 그 출발시기부터 일본의 상업 자본을 기반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레코드 제작생산에 참여한 담당층들은 그러한 조건과 환경에서 활동하면서도 다만 순응적인 자세로 일관하지는 않았다. 작사, 작곡, 가창의 모든 부문에서 한국인의 전통적, 주체적인 정서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구사함으로써 일본의 대중음악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일에 성공하였다.⁶⁾

일제 식민지 경영자들은 한국의 민족문화를 점차 희석, 소멸시키고 한국인의 의식공간에다 일본문화를 이식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실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대중음악인들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민족문화의 정신적 전통을 유지 계승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을 펼쳤고,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⁷⁾

대중음악인들의 유성기 음반을 제작 생산을 위해서는 일단 작사가, 작곡가, 가수 등 세 분야의 완벽한 일치 조화가 보장되어야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은 창작의 표현과 그 자유로움의 보장이다. 작사, 작곡, 가창 활동에 있어서 지배 권력의 의도된 강제와 규제가 뒤따르게 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⁸⁾

6)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식민지시대의 가요가 오로지 일본적인 색조와 바탕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일부의 견해는 매우 위험천만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견해가 자칫 전통부정, 문화파괴의 속성으로 흘러들게 됨을 지적하고자 한다.

7) 한국 전통음악 장르의 음반화. 잡가와 신민요 작품의 생산과 음반화, 작곡의 형식에서 전통악기의 활용과 구사 등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8) 검열(檢閱)이란 '지배권력이 사회적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있다고 판단되는 사상·의견·생각·자극이 대중 앞에 발표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또한 그것은 본래 메시지의 전체 혹은 부분에 가해지는 차단, 규제 그리고 조작의 과정을 아울러 포괄하기도 한다.(김창욱, 『일제강점기 음악의 社會史(2)-신문·잡지(1910~

본격적인 레코드 제작 생산이 시작된 1930년대 초반, 제작 담당층들은 표현의 자유에 별다른 위축을 경험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작된 레코드의 소비와 향유계층이던 식민지 피지배민층들에 의해 폭발적 인기를 얻은 음반의 경우 식민통치자들은 그 인기의 근원을 규명하려는 가혹한 검열과 수색을 하였다.⁹⁾ 주로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 검열계에서 이러한 감시와 탄압활동을 담당하였다.

1930년대로 접어들어 각종 출판물, 간행물의 분량이 늘어나면서 감시와 규제활동이 힘에 부치게 되자 식민통치자들은 새로운 감시규제법을 제정하여 조직적 통제를 수행하려 하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제정 공포된 식민지 악법이 바로 <축음기(蓄音機)·레코오드 취척규칙(取締規則)>이다. 이 법은 1933년 5월22일에 조선총독부령으로 공포되어 다음달 6월1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명백한 의도는 축음기 레코드, 즉 SP음반으로 제작 발매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열과 규제의 강화였다.¹⁰⁾ 상당수의 음반이 이른바 ‘치안방해’ ‘풍속괴란’ 따위의 이유로 판매금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현저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만 대중음악의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던 담당층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더욱 결속력을 다져서 음반의 제작 생산에 주력하였다.

일제 식민통치기 전반에 걸쳐 레코드업계의 현황은 어떠하였던가?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 전체에 제작 유통된 레코드 음반은 도합 16개

1945)를 중심으로-, 『음악학』, 한국음악학회, 2004년 8월호 참조)

9) 『황성의 적』 『타향』 『목포의 눈물』 등의 대표인기곡들이 겪었던 수난의 과정을 사례로 들 수 있다.

10) 이와 관련된 당시 <경성일보> 기사는 구체적 정황을 그대로 말해준다.

‘...작년 5월 단속규칙이 제정되어 일반 출판물과 마찬가지로 검열단속을 시작한 바, 예측대로 불량 레코드가 속속들이 발견되었다. 작년 말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치안과 풍속을 해치는 것이라고 인정되어 행정처분을 당한 것이 44종에 7천여 매에 달했다.’(<경성일보>, 1934년 2월2일자 기사 참조)

정도의 회사에서 생산 공급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 가운데 1912년 7월부터 음반을 제작 발매하여 1932년 10월에 문을 닫을 때까지 활동했던 닛본노홍(Nipponnohon)이 가장 선두주자였다.

닛본노홍에서는 주로 한국의 전통음악 장르를 취입 제작하였는데, 1925년 10월부터 일본 형식의 장쾌(長唄) 음악인 『京城四季の遊び』(徒太郎 작곡)를 필두로 해서 일본의 유행가, 동요, 군가 등이 발매되기 시작했다.¹¹⁾ 이어서 닛또(Nitto) 레코드사에서 1925년 9월부터 1927년 11월까지 약 2년간 음반의 제작과 생산에 활동하였다.¹²⁾

콜럼비아(Columbia) 레코드사는 1907년부터 제작을 개시하여 일제말인 1943년 12월까지 음반을 생산하였다. 빅터(Victor) 레코드사는 1926년경부터 음반 제작에 참여하여 1943년 1월까지 지속되고 있다. 오케(Okeh) 레코드는 1933년 1월부터 시작하여 1943년 12월까지 제작 생산된 음반을 찾아볼 수 있다. 태평(Taihei) 레코드사는 1932년 12월부터 1943년까지 음반을 제작 발매하였다. 폴리돌(Polydor) 레코드사는 1932년 9월부터 1940년 5월까지 제작한 음반이 확인된다. 리갈(Regal) 레코드사는 1933년부터 1939년까지, 그리고 시에론(Chieron) 레코드사는 1932년 2월부터 1936년 7월까지 약 5년 동안 활동하였다.

한편 군소레코드사들을 살펴보면 쇼치쿠(Shochiku)란 이름의 회사는 이후 시스터(Sister) 레코드로 개명하였다가, 나중에 스타(Star) 레코드로 이름을 바꾸어 1935년에서 1937년까지 약 2년 남짓 활동하였다. 코라이

-
- 11) 「국경경비대」, 「농속의든새」(籠の鳥), 「토끼와 거북」, 「시드르 방초」(枯れすしき) 「탕자 경계가」, 「장한몽가」, 「압록강절」(鴨綠江節), 「사랑의 새」(戀の鳥), 「숫돈돈」(スットン節), 「단초네」(ダンチョネ節), 「磯節」(이소부시) 등을 도월색, 김산월, 이계월 등의 권번출신 기생이 취입하였고, 이항란과 김계선 등도 음반 제작에 참여하였다. 특이한 점은 독창 「군인행진곡」을 가수 채규엽이 1931년 9월에 이미 취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12) 닛또레코드에서 제작된 친일적 성격의 가요 음반은 「磯節, 安來節」(정은희), 「압록강절」(정은희)와 「시들음방초」(도월색), 「압록강절」(도월색) 등이 있다.

(Korai) 레코드사는 초창기의 한때 'K.I', 'King', Kirin' 등으로 불렸는데 1933년 말부터 1938년 가을까지 약 5년간 존속하였다. 그밖에도 이글(Eagle) 레코드사, 뉴코리아(New Korea) 레코드사, 밀리온(Million) 레코드사, 디어(Deer) 레코드사, 리베라(Libera) 레코드사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서 물량적으로 가장 많은 음반을 제작 생산했던 콜럼비아, 빅터, 태평, 폴리돌, 오케레코드사 등을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의 5대 음반회사로 일컫는다.

3. 일제말 대중음악인들의 활동과 그 실상

당시 경성(京城)의 주요 음반회사들이 이른바 군국가요¹³⁾를 제작 생산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였는가? 레코드 회사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시기의 차이는 있을 터이나 일반적으로 1936년부터 1943년까지 약 7년 남짓한 기간 동안으로 보인다.¹⁴⁾

1937년 7월7일 <노구교사건(蘆溝橋事件)>이 발단이 되어 중일전쟁(中日戰爭)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까지 식민지조선의 사회적 정황은 말 그대로 불안기류 그 자체의 연속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교육자들의 사상 취체를 목적으로 1936년 1월25일 총독부 학무국 내에 사상계를 설치하고 전국의 교원들을 감시하였다. 한국인의 내부적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을 감시 하고

13) 일제말 군국주의 체제하에서 그에 부응하려는 목적으로 제작 발매된 노래를 군국주의 가요라 부르는 것은 타당하다. 친일가요, 시국가요, 부일가요 등은 용어로서의 적절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군국가요란 단일용어를 쓰고자 한다.

14) 물론 이글레코드사의 경우 1931년 9월 「군인행진곡」(채규엽 독창)을 비롯하여 김계선의 대금독주로 녹음된 「국경경비대」, 「조선명물」, 「압록강절(鴨綠江節)」, 「안래절(安來節)」 등의 일본풍 악곡이 제작 발매된 특이한 사례도 있다. 군국가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분석과 창작 환경에 관한 의미 있는 정황들은 기회를 달리하여 독립적으로 서술될 것이다.

탄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선불온문서임시취체령(朝鮮不穩文書臨時取締令)>(8월4일)과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12월12일) 따위의 가공할 악법이 같은 해에 공포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는 민족운동가의 체포 검거와 각종 노동쟁의, 소작쟁의가 끊이지 않았다.

일본군은 중국의 화북지역에서 남경정부에 대한 총공격을 시작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은 전면전으로 치달았다. 1937년 12월에 일본군은 중국의 남경을 점령하였고, 이른바 대학살사건을 저질렀다. 1938년 4월 일본정부는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공포하였고, 5월10일에는 이 법의 식민지조선에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잇달아 <조선방공훈련경보규칙(朝鮮防空訓練警報規則)>, <조선등화관제규칙(朝鮮燈火管制規則)> 등을 공포함으로써 전쟁의 암울한 분위기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였다.

1939년으로 접어들면서 1월14일에 <조선징발령(朝鮮徵發令)> 세칙을 공포함으로써 전쟁을 위한 물자의 강제징발을 정당화하는 악법을 실행에 옮겼다. 그해 3월에는 <국경취체법(國境取締法)>이 공포되어 한반도 북쪽의 국경지역인 두만강과 압록강을 왕래하는 인원과 물자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를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국민징용령시행규칙(國民徵用令施行規則)>(1939.9.20), 태평양전쟁의 준비단계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 체재 및 퇴거령(外國人の入國滞在及退去令)>(1939.11.1)이 공포되었다. 한국인의 씨명을 일본식으로 바꾸려는 이른바 창씨개명의 예비조치로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朝鮮人の氏名で關係件)>(1939.11. 10)도 공포되었다. 한글로 발간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당한 것은 1940년 8월10일의 일이다.

1940년 10월16일에는 군국주의 체제를 완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총력연맹이 조직되고, 한국인에 대한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작업이 속속 진행되었다. 음악인들의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하여 <조선음악가협회>가 강제로 조직된 것은 그 이듬해인 1941년 1월25일의 일이다.¹⁵⁾ 문단에서

국문으로 발간되던 순문예지 『문장(文章)』과 『인문평론(人文評論)』 등이 강제폐간된 것도 같은 해 4월이었다. 1942년 일본 정부는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식민지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그 2년 후인 1943년 3월1일에 <징병제(徵兵制)>를 공포하였다. 실제로 강제징병제가 시행된 것은 그해 여름의 일이다. 일본군 <해군특별지원병령(海軍特別支援兵令)>도 그 무렵에 동시에 실시되었다. 1943년 10월에는 제1회 학병 징병검사가 실시되었고, 11월20일에 마감한 학병지원율은 도합 38.7%라는 발표가 있었다. 식민지조선에서 <여자정신대근무령(女子挺身隊勤務令)>이 공포된 것은 1944년 8월23일의 일이다. 이것은 만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을 일본과 남양군도 등지의 전쟁터로 보내는 강제 징용의 실시였다. 이처럼 갖은 악법들이 식민통치 중반에서 후반기로 이르는 사이에 줄기차게 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피눈물의 헌납과 강요가 빚발쳤던 것이다.

식민지조선에서 이른바 군국가요가 레코드 음반으로 제작 발매되었던 시기는 바로 이러한 시대배경과 맞물린다. 여기서 우리는 식민지 피지배민 중들이 가장 힘들고 열악했던 생존환경에서 레코드 생산주체와 그 담당층들이 겪어야 했던 이중적 고통을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군국가요란 명칭은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직간접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노래를 일컫는다.¹⁵⁾ 그런데 단지 용어의 개념만으로 보면 식민통치자들에게 대한 순응주의적 결단으로 제작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여기에는 간단치 않은 여건이 서려있다. 그것은 자발성

15) 이에 부응하여 친일적 성향의 음악인들은 내선일체(內鮮一體)의 황민화를 주장하였고, 일본군에 뽑혀나가는 징병을 의무와 특권이라 강변하였다. 왜냐하면 그동안 받아오던 차별과 불평등이 소멸되고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확실한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를 내선일체의 완성이라 판단하였다.

16) 이준희,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유행가, ‘군국가요’ 다시보기(1)」, <오마이뉴스>, 2003년 6월9일자.

이 아니라 타발성, 즉 강제성에 따른 활동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펴본 식민지조선의 레코드회사들 가운데 그나마 영세한 체제와 형식을 유지하며 꾸러가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및 기타 간접기관에서 보내오는 직접적 공문과 각종 음성적 압력을 돌파해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공문의 문건은 현재 확인할 수 없지만 보나마나 군국주의 신체제에 협조하기를 당부하는 내용, 그리고 각 레코드사 소속의 작사가, 작곡가, 가수들, 음반제작 담당층 전원이 이에 적극 협조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정책의 윤곽을 음반 속에 반영하도록 강요하는 심리적 억압과 강제가 문건 속에 포함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¹⁷⁾

조선총독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공문을 단발성이 아니라 다발성으로 계속 보내왔을 터이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열의 불필요한 강화, 압수, 발매금지 따위의 상투적 수법으로 불이익을 주었을 것이다. 가뜩이나 식민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음반의 상업적 유통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판국에 이러한 불이익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레코드사 자체의 존폐가 기로에 놓이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을 것임은 자명한 이치다.¹⁸⁾ 이러한 이유 때

17) 실제로 1943년 9월 총독부기관지 <매일신보>의 광고면에 의하면 군국가요 『우리는 제국군인(개병가)』(김정일 작사, 김용환 작사, 최병호 노래, 태평 5079), 『어머니의 기원(개병가)』(신목경조[神木景祚]작사, 전기현 작곡, 차홍련 노래, 태평 5079) 등 두 작품에 대하여 당시 조선총독부, 조선군보도부, 국민총력조선연맹 따위의 일제 당국과 기타 친일단체들의 적극적인 찬사와 추천을 받았다. 이러한 찬사와 추천은 여타 레코드회사들에게 이를 본받기를 요구하는 심리적 강제로도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음반 검열을 강화하고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취체방침이 설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시국반(時局盤): ①개선(凱旋)을 취급한 것, ②전사(戰死)를 애상적으로 노래한 것, ③나약한 감정을 부러너흔 것, B.유행가(流行歌): ①음□(淫□)에 기울은 것, ②술 담배 기타를 주제로 해서 데카단(퇴폐)에 기울은 것, ③여행각중(旅行脚中) 시정(市井)의 도(徒)의 적은 의리 인정을 중심으로 한 것.

문에 이른바 체제에 대한 협력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부분적이라도 협력 내용을 담고 있는 음반을 제작 발매하는 사례가 누적될수록 점점 심적 부담이 둔화되면서 일상적 보편성에 빠져들었으리라. 이른바 군국가요 음반의 제작과 생산과정은 바로 이러한 경로를 밟았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바람이 나서 친일적인 내용, 혹은 군국주의와 그 통치방식에 대한 예찬, 일본에 대한 막연한 동경 따위를 작품의 내용으로 반영한단 말인가? 거기에 따르는 아무런 대가도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서 오로지 레코드회사의 존속을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마냥 지속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 레코드회사별 군국가요 발표현황

식민지조선의 각 레코드회사들에서 이른바 군국가요를 발표한 시기와 작품명 및 발표 분량은 다음과 같다.¹⁹⁾

(1) **오케레코드:** 1936년 4월 신보 『끝없는 지평선』(문예부 작사, 손목인 작곡, 김해송 노래, 음반번호 1880)~1943년 12월 신보 『희망마차』(조명암 작사, 남촌인 작곡, 백년설 노래, 음반번호 31215), 도합 100편.

(2) **콜롬비아레코드:** 1936년 12월 신보 『만주(滿洲)의 달』(이하운 작사, 강구야시 작곡, 채규엽 노래, 음반번호 40735)~1943년 11월 신보 『아들의 소식』(함경진 작사, 한상진 작곡, 옥잠화 노래, 음반번호 40919), 도합 51편.

(‘레코드의 신취체방침’, <조선일보>, 1938년 1월28일자 기사 참조.)

19) 김점도 편, 『유성기음반자료집총람』(1907년부터 1943년까지), 신나라뮤직, 2000을 기초자료로 선정하고, 그에 수록된 모든 가요작품을 제목 중심으로 검색하고,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 자료가 이미 밝혀진 작품은 확실하지만 제목만으로 추정할 경우 약간의 오차범위가 발생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 오차범위는 ±2% 미만이 될 것이다.

(3) **태평레코드:** 1941년 1월 신보 『사나히 기풍』(김소석 작사, 전기현 작곡, 태성호 노래, 음반번호 C-5021)~1943년 9월 신보 『동백꽃 피는 망루(望樓)』(김다인 작사, 이재호 작곡, 이인권 노래, 음반번호 5086), 포함 48편.

(4) **빅터레코드:** 1937년 12월 신보 『환희의 대지』(강해인 작사, 김송규 작곡, 김해송 노래, 음반번호 KJ-1135)~1943년 1월 신보 『적도통신(赤道通信)』(한정무 노래, 음반번호 KA), 포함 6편.

(5) **폴리돌레코드:** 1937년 10월 신보 『남아(男兒)의 의기』(애국가, 김용환 노래, 음반번호 19446)~1940년 1월 신보 『비오는 요꼬하마』(채규엽 노래, 음반번호 X-647), 포함 4편.

(6) **스타레코드:** 1937년 11월 신보 『정의의 사(師)여』(김억 작사, 이면상 작곡, 임동호 노래, 음반번호 KS-2025)~1937년 11월 신보 『충후의남(銃後義男)』(최남선 작사, 이면상 작곡, 임동호 노래, 음반번호 KS-2025), 포함 2편.

기타 **리갈레코드, 뉴코리아레코드, 밀리온레코드, 디어레코드, 시에론레코드, 리베라레코드** 등의 경우는 군국가요 제작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예시는 이른바 군국가요 음반의 제작 발매실적이 가장 두드러진 레코드회사의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당시 레코드회사의 사업규모와 위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규모가 두드러지는 회사일수록 이른바 군국가요 음반의 제작과 발표에 더욱 적극성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 군소 레코드회사에서는 존속 자체가 아주 짧았던 탓으로 이른바 군국가요 생산에 참여할 겨를이 없었을 터이고, 스타레코드사의 경우 단지 1937년도에 발매된 한 장의 음반이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는 레코드회사별 소속 작사가, 작곡가, 가수별 군국가요 발표현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예시에서는 상위권 3위까지의 레코드회사 중심으로만 살펴보겠다.

2) 작사가, 작곡가, 가수별 군국가요 발표현황

(1) 오케레코드(1936.4~1943.12)²⁰⁾

작사가: ① 조명암 67편, ② 김다인 7편, ③ 처녀림 3편

작곡가: ① 박시춘 38편, ② 김해송 21편, ③ 이봉룡 11편

가 수: ① 백년설 20편, ② 남인수 18편, ③ 이화자, 장세정 각 10편, ④ 이난영, 박향림 각 8편, ⑤ 김정구 4편

(2) 콜럼비아레코드(1936.12~1943.11)

작사가: ① 이가실 14편, ② 이하운 8편, ③ 함경진 7편, ④ 김억, 김다인 각 3편

작곡가: ① 손목인 13편, ② 한상기 9편, ③ 이면상 2편

가 수: ① 이해연 7편, ② 김영춘 6편, ③ 이규남 5편, ④ 정찬주 4편, ⑤ 김안라, 고운봉, 남해성 각 3편

(3) 태평레코드(1941.1~1943.9)

작사가: ① 박영호(처녀림) 8편, ② 김다인, 반야월 각 6편, ③ 김영일(불사조) 5편, ④ 김익균 3편, ⑤ 김영수, 박향민 각 2편

작곡가: ① 이재호 23편, ② 전기현 9편, ③ 김용환 2편

가 수: ① 진방남 11편, ② 백난아, 이인권 각 7편, ③ 태성호 5편, ④ 백년설, 차흥련 각 4편

이상의 자료 검색을 통한 레코드 회사별 집계를 알아본 바, 각 레코드사들이 전반적으로 이른바 군국가요 제작 발매를 시작한 시기는 식민지조선의 피지배민증을 억압 통제하기 위한 각종 악법들이 잇따라 공포 시행되던 1936년부터이다. 대다수의 군국가요들이 나타내고 있는 특색이라면 일제의 전시체제 강화에 부응하여 직접적으로 전쟁 참여를 선동하거나 전시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내용의 표현이다. 그러한 작품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와 비유적이고 중의적 표현을 통하여 내용의 구체성을 불분

20) 괄호안의 연도는 이른바 군국가요가 제작 발매된 시기를 가리킨다.

명하게 표현한 경우도 있다.²¹⁾

이준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일관된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과 더불어 상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단어들 있는데 이는 ‘충성’, ‘승리’, ‘아세야’, ‘대동아’ ‘동양평화’ 따위의 투식성(套式性) 어휘들이다. 한편 유행가, 가요곡 대신에 나타내는 장르 명칭으로는 애국가, 시국가, 국민가, 주제가, 개병가(皆兵歌) 등이다. 대체로 이러한 방법과 표현들은 군국가요를 제작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보다는 발표되기 직전 검열통과를 목적으로 사용한 일종의 편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군국가요에 대한 성급한 분류와 결정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활동이므로 작품 하나하나에 따른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 대하여 우리는 동감을 표시하는 바이다.²²⁾

이제 앞의 자료 정리를 통하여 일제식민통치 후반기에 발표된 이른바 군국가요의 제작과 발표에 참여한 작사가, 작곡가, 가수별 발표작품의 순위와 편수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작사가별 순위

- ① 조명암(이가실): 오케레코드 67편, 콜럼비아레코드 14편, 도합 81편
- ② 김다인: 오케레코드 7편, 태평레코드 6편, 도합 13편²³⁾

21) 이준희,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유행가, ‘군국가요’ 다시보기(4), <오마이뉴스> 2003년 6월30일 기사 참조.

22) 이준희, 같은 글 참조.

23) 작사가 김다인(金茶人)에 대하여 학계, 가요비평계에서는 그동안 많은 오류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었다. 그 오류들을 살펴보면 ①김다인이 작사가 조명암의 또 다른 필명이라는 설, ②김다인이 작사가 박영호(치녀림)의 또 다른 필명이라는 설, ③김다인이라는 이른바 ‘다인(多人)’과 동음으로 그 필명은 당시 여러 작사가들이 공유하던 필명이었다는 설,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오류는 모두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47년 대구에서 오리엔트레코드사를 설립 운영했던 작곡가 이병주의 증언에 의하면 작사가 김다인은 실재했던 별개의 인물로서 한국전쟁 직후 대구로 피난 내려와 거주하였

- ③ 박영호(처녀림): 태평레코드 8편, 오케레코드 편, 도합 11편
- ④ 이하윤: 콜롬비아레코드 8편, 도합 8편
- ⑤ 함경진: 콜롬비아레코드 7편, 도합 7편
- ⑥ 반야월: 태평레코드 6편, 도합 6편
- ⑦ 김영일(불사조): 태평레코드 5편, 도합 5편

(2) 작곡가별 순위

- ① 박시춘: 오케레코드 38편, 도합 38편
- ② 이재호: 태평레코드 23편, 도합 23편
- ③ 김해송: 오케레코드 21편, 도합 21편
- ④ 손목인: 콜롬비아레코드 13편, 도합 13편
- ⑤ 이봉룡: 오케레코드 11편, 도합 11편
- ⑥ 전기현: 태평레코드 9편, 도합 9편
- 한상기: 콜롬비아레코드 9편, 도합 9편

(3) 가수별 순위

- ① 백년설: 오케레코드 20편, 태평레코드 4편, 도합 24편
- ② 남인수: 오케레코드 18편, 도합 18편
- ③ 진방남: 태평레코드 11편, 도합 11편
- ④ 이화자: 오케레코드 10편, 도합 10편
- ⑤ 이난영, 박향림: 오케레코드 각 8편, 도합 각 8편
- ⑥ 이해연: 콜롬비아레코드 7편, 도합 7편

고, 오리엔트레코드사를 자주 방문하여 작사한 원고몽치를 맡기고 가던 모습과 원고료를 받아가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였다. 하지만 본명과 가족관계, 개인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하였다. 당시 오리엔트레코드사에서는 작곡가 박시춘이 문예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작사가의 위상은 전혀 보장된 환경이 아니었다고 한다. 어쩌다 찾아와 맡기고 간 원고몽치 중에서 작곡가의 눈에 들어 작곡이 된 경우는 썩 드문 경우였다고 한다. 채택이 되지 않은 원고는 모두 쓰레기통으로 버려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김다인은 오리엔트레코드사에서 유일한 가요작품 「고향초」(김다인 작사, 박시춘 작곡, 장세정 노래)가 채택되어 음반으로 제작 발매되었다.

- 백난아, 이인권: 태평레코드 각 7편, 도합 각 7편
- ⑦ 김영춘: 콜럼비아레코드 6편, 도합 6편
- ⑧ 태성호: 태평레코드 5편, 도합 5편
이규남: 콜럼비아레코드 5편, 도합 5편
- ⑨ 김정구: 오케레코드 4편, 도합 4편
정찬주: 콜럼비아레코드 4편, 도합 4편
차홍련: 태평레코드 4편, 도합 4편
- ⑩ 김안라, 고운봉, 남해성: 콜럼비아레코드 각 3편, 도합 각 3편

일제강점기에 이른바 군국가요를 발표한 작사가별 순위와 편수에서는 조명암이 81편으로 단연 두드러진다. 조명암은 오케레코드 뿐만 아니라 콜럼비아레코드에서도 이가실(李嘉實)이란 필명으로 다수의 가요시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웬만한 군국가요 작품들이 거의 조명암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당시 조명암의 주된 발표 터전은 오케레코드사였다. 그 뒤를 이어서 김다인이 오케레코드와 태평레코드 등 두 회사에서 13편의 군국가요류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김다인은 일종의 프리랜서로 여러 레코드회사에 가사작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사계에서 조명암과 쌍벽을 이룰 정도였다는 박영호는 태평레코드와 오케레코드 두 회사에서 도합 11편을 발표하고 있다. 박영호의 경우 태평레코드사 문예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태평레코드사는 박영호의 주된 활동 터전이었던 것이다. 이하윤은 시인 출신으로 경성방송국(JODK)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인생의 후반기에는 영문학자로 대학에서 재직하였다. 그는 식민지시대 후반기에 콜럼비아레코드사와 두터운 친분을 맺고 다수의 가요시 작품을 공급하였다. 이하윤은 콜럼비아레코드사에서 7편의 군국가요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작곡가의 경우 박시춘이 주된 활동터전이었던 오케레코드에서 도합 38곡의 군국가요를 발표함으로써 빈도수로는 단연 으뜸 자리를 차지하고 있

다. 그 뒤를 이어서 이재호가 태평레코드에서 23곡을 발표하였고, 김혜송이 오케레코드에서 21곡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손목인은 자신의 소속사인 컬럼비아레코드에서 13곡을 발표하여 4위를 차지하였고, 이봉룡이 오케레코드를 통하여 11곡을 발표함으로써 5위에 다다르고 있다. 전기현과 한상기는 태평레코드와 컬럼비아레코드에서 각각 9곡씩 발표하여 6위를 마크하였다.

가수의 경우 백년설이 오케레코드에서 20곡, 태평레코드에서 3곡 등 도합 23곡을 취입함으로써 단연 1위에 자리를 차지하였다. 원래 태평레코드사 존속이었으나 오케레코드사의 집요한 이적 요청으로 소속사를 오케레코드로 옮겼다. 이어서 남인수가 자신의 전속사인 오케레코드사에서 18곡을 취입 발표하여 2위로 표시되었다. 3위는 태평레코드사 전속으로 활동하며 11곡을 발표했던 진방남이다. 그는 태평레코드에서 반야월이란 예명으로 6편의 군국가요 노랫말을 발표하였다. 이화자와 장세정은 오케레코드에서 각각 10곡의 군국가요를 발표함으로써 순위 4위에 랭크되었다. 5위는 이난영과 박향림으로 오케레코드에서 각각 8곡씩의 군국가요를 발표하였다. 6위는 이해연, 백난아, 이인권으로 그들은 컬럼비아레코드, 태평레코드 등에서 각각 7곡씩의 군국가요를 취입하였다. 김영춘은 컬럼비아에서 6곡의 군국가요를 취입하여 7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 뒤를 이어서 8위는 태평레코드에서 5곡의 군국가요를 발표한 태성호, 컬럼비아에서 5곡을 발표한 이규남으로 확인되었다. 9위는 오케레코드에서 4곡을 발표한 김정구, 컬럼비아레코드에서 4곡을 발표한 정찬주, 태평레코드에서 4곡을 발표한 차홍련 등이다. 10위는 김안라, 고운봉, 남해성 등으로 그들은 컬럼비아레코드사에서 각각 3편씩의 군국가요를 취입하였다.

4. 화합과 창조를 위한 제언

작사가별, 작곡가별, 가수별 순위와 그 빈도수는 일제말 군국가요의 제작과 생산현황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자칫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친일잔재 청산과 척결을 위한 단순논리와 그 주장의 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료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사용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하는 바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친일이라는 단순논리로 그들을 비판하고 부정한다면 이는 문화파괴의 또 다른 악순환을 낳는 결과에 봉착하고 만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조명암의 경우 가장 많은 군국가요 노랫말을 써서 제출한 장본인이지만 그는 월북의 길을 선택하여 한국문화사에서는 분단시대의 매물문학인이 되었다.²⁴⁾ 월북 이후에도 다수의 가요시 작품을 써서 북한정권에 제출하였는데, 그것은 대개 당과 수령을 예찬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었다. 북한정권은 다수의 군국가요를 써서 군국주의 체제를 예찬했던 조명암에게 완전한 특단의 사면조치를 내렸고,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정권의 비호와 보장 속에서 승승장구하여 고위직에 진출하였으며 말년까지 화려한 생애를 살았다. 그 까닭과 배경이 무엇일까? 초기의 북한정권은 조명암과 같은 비범한 재능의 지식인을 아끼고 중용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조명암을 비롯하여 친일경력이 뚜렷한 다수의 지식인들은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후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제식민통치기에 레코드 제작과 생산에 관련한 중심적 담당층들은 거의 모두 『친일인명사전』

24)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남월재북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식적 해금조치가 발표되었을 때도 조명암은 그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그 까닭은 북한정권하에서 국립극장장, 문화부 부상 따위의 고위직을 지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에 감금되어 여론의 못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음악, 무용에 해당되는 이른바 친일인사 43인 중 대중음악인은 18명이다. 그 명단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영철, 김영길, 김준영, 김해송, 남인수, 박시춘, 백년설, 반야월, 손목인, 이규남, 이봉룡, 이재호, 이철, 장세정, 전기현, 조명암, 최팔근, 한상기 등이 바로 그 해당 인사들이다. 지금은 거의 대다수 타계한 상태이다.

면면의 생애를 더듬어 보노라면 역사적 굴곡이 극심했던 식민지 격동기에 출생하여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세대였다. 민족의 주체성이 현저히 손상된 시대를 배경으로 그들의 청년기와 장년기의 삶이 펼쳐졌다. 험한 시대에 그대로 노출되어 겪게 된 유린과 수모도 많았을 것이다. 식민지 경제의 궁핍 속에 시달리며 그들이 쌓아올린 대중문화사적 공로를 날낱이 찾아서 정리하면 놀라운 업적들이 새로 확인되리라. 작사, 작곡, 가창의 분야에서 그들은 열악한 조건과 환경을 딛고 자신의 위상을 수립해 나아갔다. 1945년 조국이 제국주의 압제로부터 풀려나 해방이 되었을 때에도 더욱 세차게 휘몰아친 이념적 갈등과 대립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삶의 이중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 고통의 터널 끝에서 태풍처럼 휘몰아 닥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부지하는 한 대중음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았다.

작곡가 박시춘의 경우 분단 이후에도 무수한 가요작품을 발표하였고, 대중들의 다함없는 사랑과 갈채를 받았다. 생시에 남긴 작품이 도합 몇 편이나 되는지 그 정확한 집계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한다.²⁵⁾ 가령 2,000여 편으로 추정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군국가요적 성격을 지닌 작품은 약 30여 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인명사전』은 박시춘의 활동을 마치 전심전력으로 친일을 향해 질주한 것처럼 평가하는 어설픈

25) 대개 어렵추정으로 2,000~3,000편 가량이라고 하나 그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

방식으로 치달았다. 박시춘이 작곡한 군국주의 성향 가요작품이 그가 작곡한 작품 전체를 함축할 정도로 분량과 품질의 측면에서 과연 ‘문제적’인가? 너무 거친 일반화로 이끌어갔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 폄하를 염두에 둔 관점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²⁶⁾ 이것은 비단 박시춘의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책에 수록된 다른 대중음악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박시춘은 생애 전체를 통틀어 오로지 군국가요만 작곡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만약 군국가요 작곡으로만 일관된 삶을 살았다면 그는 분명 을사오적, 정미칠적 따위와 동일한 비중을 차지했을 터이다. 하지만 전체 작품 중에서 고작 1.8% 정도에 불과한 작품을 문제 삼아 박시춘의 전체 생애를 비판, 매도, 유린, 부정하는 처사는 올바른 지적적 분별을 잃어도 한참 잃었다 할 것이다. 너무 경우에 지나치다는 판단을 지을 수 없다. 단지 부분적 자료만 제시하면서 한 인간, 혹은 전체 기관까지 싸잡아 친일로 규정하려는 충동적이고 선부른 경향이 『친일인명사전』 선정 작업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선정 활동에 참여한 담당자들은 그러한 유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던 듯하다.

이와 더불어 다시금 환기하고 싶은 사실은 박시춘의 가요작품 중에서 현재까지도 한국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주옥같은 명곡들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문제이다. 우선 떠오르는 비근한 사례만 들어보더라도 「가거라 삼팔선」(이부풍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46), 「가거라 슬픔이여」

26) 이러한 의도적 폄하를 주도한 인사는 노동은이다.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그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노동은, 『일제하 음악사회의 성격』, 『민족음악론』, 『노동은·이건용 공저, 한길사, 1991
-----, 『한국 민족음악 현대계』, 세광음악출판사, 1995
-----, 『삶과 죽음의 월계수, 윤심덕』, 『노동은의 음악상자』, 웅진, 1996
-----, 「우리 역사쓰기, 참인가, 거짓인가?」, 『노동은 두 번째 음악상자』, 한국학술정보
주식회사, 2001
-----, 「일제하 음악인들의 친일논리와 단체」, 『음악과 민족』 제25호, 민족음악학회,
2003

(반야월 작사, 박시춘 작곡, 백설희 노래, 1956), 『고향만리』(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현인 노래, 1948), 『고향의 그림자』(손로원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53), 『고향초』(김다인 작사, 박시춘 작곡, 장세정 노래, 1953), 『군세어라 금순아』(강사랑 작사, 박시춘 작곡, 현인 노래, 1953), 『낭랑 십팔 세』(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백난아 노래, 1936), 『럭키 서울』(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장세정 노래, 1948), 『물새 우는 강 언덕』(손석우 작사, 박시춘 작곡, 백설희 노래, 1953), 『봄날은 간다』(손로원 작사, 박시춘 작곡, 백설희 노래, 1956), 『삼다도 소식』(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황금심 노래, 1952), 『신라의 달밤』(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현인 노래, 1947), 『왕서방 연서』(김진문 작사, 박시춘 작곡, 김정구 노래, 1937), 『애수의 소야곡』(이부풍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36), 『오부자의 노래』(반야월 작사, 박시춘 작곡, 도미 노래, 1957), 『이별의 부산정거장』(호동아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53), 『전선야곡』(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신세영 노래, 1950), 『하이킹의 노래』(이부풍 작사, 박시춘 작곡, 도미 노래, 1959) 등 다수의 애창가요들이 있다.²⁷⁾

만약 박시춘을 친일파로 못을 박아 그의 모든 위상을 부정하고 금지한다면 이러한 국민애창가요까지 금지해야 마땅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다면 누가 전체 국민들의 위로와 격려수단인 박시춘 작곡의 가요작품을 함부로 금지하고 박탈할 수 있단 말인가? 상기 가요작품들은 그대로 유통시키면서 정작 그 노래를 작곡한 장본인을 『친일인명사전』에 가두어 놓고 유린 모독하는 일은 전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

우리는 앞에서 다수 대중문화인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맥락과 관련하여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또 다른 대중음악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불만과 논리의 착종(錯綜)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들은 김준영,

27) 『한국가요』(개정판), 세광음악출판사, 1988

김해송, 남인수, 백년설, 반야월, 손목인, 이규남, 이봉룡, 이철, 장세정, 전기현, 조명암 등의 존재성과 그 현실에 대한 문제이다.²⁸⁾ 강조해서 말하자면 이른바 친일 대중음악인으로 선정된 18인의 명단은 다시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단지 계량적 판단이나 친일에 대한 신념 및 그 여부, 혹은 질적인 문제에 관한 성급한 판단을 극복한 상태에서 다시금 세밀한 분석과 정리가 필요하다.

상당수의 인사들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납치되어 생사불명인 경우도 있었다. 대중음악인으로서 그들의 말년은 초라하고 고달팠다. 상당수는 식민지시대와 한국전쟁의 격랑을 돌파하지 못한 채 기어이 삶을 마감하였다. 어쩌다 노년까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각종 질병과 궁핍으로 방치된 삶을 살면서 허무와 좌절로 일관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마침내 20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그들의 육신은 대부분 이승을 떠났다. 그런데 뜻밖에도 ‘과거사 청산’이란 명분을 내어걸고 이른바 친일, 부일 따위의 죄목을 들썩우며 이미 고인이 된 대중음악인까지 낱낱이 들추어내어 목에 죄목을 걸고 있는 것은 현대판 부관참시(剖棺斬屍)의 또 다른 사례가 아니고 무엇인가?²⁹⁾

집단적 여론의 명분을 내세우며 한 인간의 과거행적을 성토했고 단죄하

28) 남인수(경남 진주), 백년설(경북 성주), 박시춘(경남 밀양), 조명암(충남 아산) 등의 경우 해당 대중음악인들의 출신지역에서 그들의 이름을 걸고 계획되었거나 이전부터 개최 운영해 오던 가요제 및 각종 관련행사들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파 명단 발표 이후 속속 중단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자칫 이념대립과 분열 및 여론의 양극화현상을 한층 부추기는 위험한 사례로써 크게 염려되는 부분이다.

29) 우리는 『친일인명사전』 수록명단의 선정기준과 일관성의 현저한 자기모순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등록된 18명 외에 김다인, 박영호, 이화자, 이난영, 이하윤, 함경진, 김억, 이면상, 이해연, 김영춘, 정찬주, 김안라, 고운봉, 남해성, 김영일, 김익근, 김영수, 박항민, 김용환, 김정구, 백난아, 이인권, 태성호, 차홍련 등의 군국가요 자료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는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난영가요제>(목포시 주관으로 1969년부터 시작됨)와 <백난아가요제>(제주도 주관으로 2009년 7월25일 개막) 등의 행사들은 지역주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개최되었고, 친일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도 발생하지 않았다.

는 과정은 지난날 중국에서 빚어진 <문화대혁명>의 비극적이고 우울했던 파탄의 역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문단도 예외가 아니어서 식민지시대에 각종 글과 작품을 발표했던 친일문학인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단죄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발성’, 혹은 ‘협력론’, ‘내적 논리’ 따위의 의미와 해석을 둘러싸고 비평가 및 문학사 연구자들 사이에 격심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측에서 소송과 반대운동까지 펼쳐졌다.³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문학인의 경우와 대중음악인의 경우를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문학인의 경우는 대개 단일한 존재로 작품을 구상하고, 신문 잡지 등의 간행물에 완성된 작품을 발표한다. 하지만 대중음악인의 경우 소속 레코드사를 중심으로 작사가가 노랫말을 만들고, 작곡가가 여기에 곡을 붙이며(혹은 작곡이 작사보다 선행하는 경우도 있다), 완성된 악곡을 가수가 연습을 하여 녹음실에서 취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레코드회사별로 기획된 음반이 제작되고, 음반판매상으로 공급이 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문학과 대중음악은 창작의 과정이나 유통의 경로가 서로 전혀 이질적 관계이며 상반된 특성을 보인다.

문학의 경우 한 편의 작품을 창작하는 시인, 작가에 의해 구상과 모티브의 정착과정에 다소 긴 시간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정신,

30) 이러한 계열의 대표적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재용,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으로서의 친일문학-서정주의 친일문학에 대하여』, 『실천문학』, 2002년 여름호.

하정일, 『한국 근대문학 연구와 탈식민-친일문학』 문제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003

김명인, 『친일문학 재론-두 개의 강박을 넘어서』, 『한국근대문학연구』, 2008.4

김춘식, 『친일문학에 대한 ‘윤리’와 서정주 연구의 문제점-식민주의와 친일』, 『한국근대문학연구』, 2008.6

작가의식의 표현 등과 관련된 시대정신, 즉 역사의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음악의 경우 즉물성(卽物性), 혹은 즉발성(卽發性)인 경우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하자면 한 순간에 얻은 창작 모티브를 곧바로 메모를 하고, 작사와 작곡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창작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뜻이다.³¹⁾ 왜냐하면 항시 새로운 레코드의 공급을 갈망하는 대중들의 요구와 기호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레코드제작과 생산에 종사하는 중심적 담당층들은 가장 최단기간에 제작과 생산을 완료하여 가장 신속히 대중들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업적 이윤의 극대화는 물론 필수적으로 성취해야 할 중요목표였다. 그러한 충족을 달성해야만 그 다음 음반제작으로 신속히 연결될 수 있는 여유로운 환경이 조성되며, 그들의 노력으로 레코드회사의 명성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일제식민통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레코드회사 경영진에게 줄곧 가해지는 심리적 억압과 각종 규제조치는 작사가, 작곡, 가수들로 하여금 시국에 협력하기를 요구하는 식민통치자들의 비위를 정면으로 거부하기가 불가능했으리라. 이른바 레코드회사의 전속이란 이름을 걸고 있었던 작사가, 작곡가, 가수들은 제각기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 소속사를 떠나서는 생존의 터전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우리는 문학인에게 필수적으로 수반되던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의 표현을 대중음악인에게까지 기대하기란 사실

31) 창작의 즉물성, 즉발성 및 그 과정을 증언하는 여러 일화들이 서려있는 가요작품들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작품을 들 수 있겠다. 『황성의 적』(왕평 작사, 전수린 작곡, 이에리수 노래, 1927), 『목포의 눈물』(문일석 작사, 손목인 작곡, 이난영 노래, 1934), 『목포의 눈물』(문일석 작사, 손목인 작곡, 이난영 노래, 1934), 『예수의 소야곡』(이부풍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36), 『번지 없는 주막』(박영호 작사, 이재호 작곡, 백년설 노래, 1938), 『나그네 설움』(고려성 작사, 이재호 작곡, 백년설 노래, 1939), 『꿈꾸는 백마강』(조명암 작사, 임근식 작곡, 이인권 노래, 1943), 『비 내리는 고모령』(호동아 작사, 박시춘 작곡, 현인 노래, 1948), 『굳세어라 금순아』(강사랑 작사, 박시춘 작곡, 현인 노래, 1953) 등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일제식민통치자들은 대중음악의 제작과 생산에 종사하던 담당층을 당시 체제의 선전도구, 혹은 나팔수쯤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시국가요, 혹은 군국가요적 특성을 내포한 레코드를 잇달아 제작생산하기를 줄곧 강박했을 터이고, 이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부응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동문학가로 가요시 창작에도 관여를 한 경험이 있었던 윤석중은 ‘왜정말기 폭정이 심할 때에 무엇이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평론가 조진형의 다음과 같은 서술은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일제 통치 말년 그때의 위협과 탄압에 버틸 수 있는 이 땅의 백성은 없다. 아마 그들이 작곡을 하거나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역이었을 것이다. (중략) 강제된 어쩔 수 없는 부역을 하고 있는 일이 어찌 친일인가?

조진형의 견해에 의하면 친일은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자발적으로 왜정에 봉사한 자’이지만 부역이란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국가나 관청이 의무적으로 지우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제 일제말 대중음악인의 강압적 부역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의 친일논의는 하지말기로 하자. 그것은 너무도 소모적이고, 문화파괴적이며, 자해적인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한번 손상된 상처를 다시 봉합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일은 몹시 힘들 뿐 아니라 어찌면 불가능한 작업인지도 모른다. 글의 말미에 이르러 다시금 부언하거니와 친일문제의 처리는 최원식의 지적처럼 ‘최소의 배제를 통한 최대의 통합, 즉 사회대통합’의 차원에서 그 목적을 두고 출발했어야 옳았다. 그러한 인식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민족문제연구소의 활동은 과거 해방 직후 반민특위의 형식과 성격을 그대로 반복

하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과거시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야 하는 실로 중대한 시점에 다다라 있다. 더 이상 소모적 논쟁과 비판은 그만 매듭짓기로 하자. 이와 동시에 선부른 판정과 감정적 해결도 일단 유보하고, 심호흡을 하면서 미래를 향한 숨고르기를 하자. 과거시간의 우울한 상처와 기류로부터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법은 오로지 용서와 화해 두 가지 미덕이 아닐까?

【참고문헌】

- 임종국,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 1982
- 황문평, 『가요육십년사』, 전곡사, 1983
- 『한국가요』(개정판), 세광음악출판사, 1988
- 유선영, 「한국대중문화의 근대적 구성과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원 박사논문, 1992
- 손목인, 『못다 부른 타향살이』, 도서출판 Hotwind, 1992
- 古田武 信男, 新版 日本流行歌史, 社會思想社(도쿄), 1994
- 가사집, 『유성기로 들던 불멸의 명가수』, 신나라레코드, 1996
- 宮田節子,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이형량 역), 일조각, 199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 민속원, 1998
-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시공사, 1998
- 김점도 편, 『유성기음반자료집총람』(1907년부터 1943년까지), 신나라뮤직, 2000
- _____, 위음, 『애수의 소야곡-박시춘명작집』, 삼호출판사, 2000
- 황룡옥, 『계몽기가요선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 최창호, 『민족수난기 가요들을 더듬어』, 평양출판사, 2003
- 노동은, 『일제하 음악인들의 친일단체와 논리』, 『음악과 민족』, 민족음악학회, 2003
- 이동순 편, 『조명암시전집』, 선출판사, 2003
- _____, 『번지 없는 주막-한국가요사의 잃어버린 번지를 찾아서』, 선출판사, 2008
- 이상희, 『오늘도 걷는다마는 백년설 그의 삶, 그의 노래』, 선출판사, 2003
- 조진형, 『음악가 중 청산되어야 할 친일파는 없다』, 이슈읽기-〈친일인명사전비판〉, 모아진, 인터넷검색창 <http://olv.moazine.com/tviewer/index.asp>
- 이준희,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유행가, ‘군국가요’ 다시보기(1)-(45)』, <오마이뉴스>, 2003.6~2004.6 연재분
- _____, 『일제시대 군국가요 연구』, 『한국문화』 46집, 2009.6
- 장유정, 『일제강점기 한국 대중가요 연구』, 서울대학교원 박사논문, 2004
- 문옥배, 『한국 금지곡의 사회사』, 예술, 2004
- 김창욱, 『일제강점기 음악의 社會史(2)-신문·잡지(1910~1945)를 중심으로-』, 『음악학』, 한국음악학회, 2004년 8월호
- 김재용, 『협력과 저항-일제말 사회와 문학』, 소명출판, 2004

- 반야월, 『불효자는 읍니다』(회고록), 화원, 2005
- 자료집,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모색과 전망』(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7.4.25.
- 박애경, 『1940년대 군국가요에 나타난 젠더 이미지와 젠더 정치』, 『민족문화논총』 제 35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7.6
- 菊池清歴, 『日本流行歌變遷史』, 論創社(도쿄), 2008
- 박찬호, 『한국가요사(1)-(2)』, 미지박스, 2009

Abstract

Publishing Status and Actual Condition of Militant Songs in the
Later Japanese Forced-ruling Period

Lee, Dong-soon

This study is to analyze a militant song(軍國歌謠) in Korea which came out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zation era of Korea from the later 1930s to the mid-1940s. A militant song refers to a song which is made to correspond to Japanese militaristic invasion directly or indirectly. These songs were supposed to be made and published forcibly by the Japanese colonial forced-ruling power.

The militant songs are about 211 songs, which were made and published by the leading record companies of Seoul from 1936 to 1943. This study researches and arranges in detail the circumstances of the record-producing and record companies in Japanese forced-ruling period, and the specific activities and situation of popular musicians in the later Japanese forced-ruling period. In addition, this study researches and arranges the publishing status of militant songs both by record companies and by the lyric writers, the composers, the singers.

The representative composers, lyric writers, singers in those days participated in the record production, which is an avoidable task connected directly to basic survival of them. However, as time goes by, in the later 2000s, the Korean government made a list of people with pro-Japanese career in the past under a justification, "Righting Our History", which the Korean government published into a bulky book. In that book, 18 popular musicians were on the list with the real traitors like the Eulsa-Ojeok (乙巳五賊, Five traitors of high officials in the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Korea of 1905), which is a seriously wrong judgement.

It would be justifiable to evaluate their great songs, and then to counterbalance or possibly forgive their faults in the past through a big-hearted generosity and reconciliation, getting out of high-risk linear way of thinking, that is, the criticism on past events based on the result.

Key-words : Japanese forced-ruling period, Militant songs, Popular musicians, Record, Forgiveness, Reconciliation.

이동순

소속 :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문학과 교수

주소 : 경상시 옥산동 신화타운 201동 407호

폰 : 010-4538-8700

전자메일 : dslee50@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12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12월 26일 게재 확정됨.